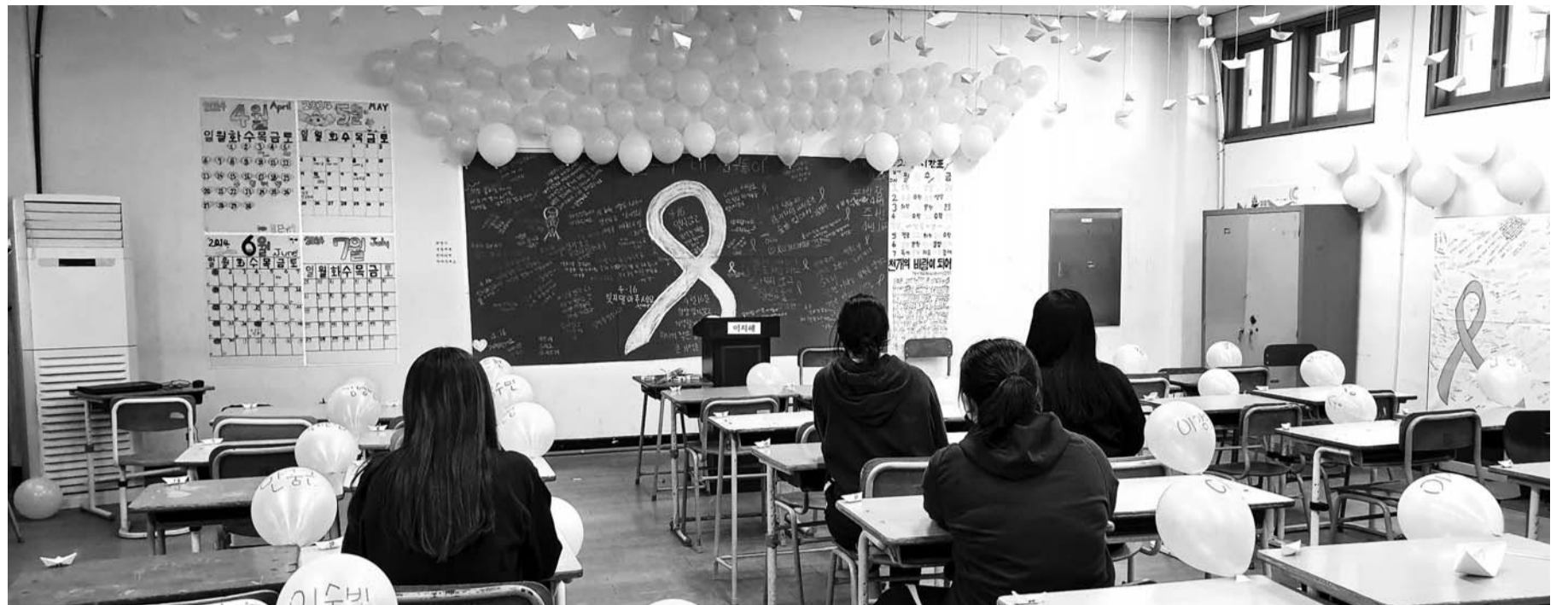


# 잊지 않았습니다...광주·전남 학생들 특별한 세월호 추모

전남공고생들 '단원고 2학년 7반 기억의 교실' 만들고  
광주 수피아여고생들 7분짜리 추모영상 제작 공개  
진도 조도 초중고생들 유채꽃 바다에 띄워보내며 위로

"단원고 2학년 7반을 떠올리면 유독 맘이 더 아팠어요. 수학여행 갔다가 딱 1명 돌아온 반이잖아요. 그 교실을 재현해서 추모한다면 더 오래 맘에 담아둘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세월호 참사 5주기를 하루 앞둔 지난 15일 광주 광산구 전남공고에 특별한 추모공간이 들어섰다. 이 학교 실습동 2층 도목과 제도실에 만들어진 '기억의 교실'이다. 김정빈(건축과 2년) 부회장 등 학생회 소속 학생 20여명은 지난 주부터 꼬박 1주일 동안 교실의 교실을 흔쾌히 내줬고 세월호 유가족 측에서도 "잊지 않고 기억해줘서 고맙다"며 학생들을 격려했다고 한다. 학생들은 TV뉴스와 신문기사 등을 참고해 참사 이후의 '단원고 2학년 7반 교실'을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재현했다. 커다란 칠판 위에는 노랑 풍선으로 칠판보다 더 큰 세월호 모형을 만들어 붙였고, 천장 곳곳에도 노란 종이로 만든 세월호 모형을 매달았다. 월요일 오전 기억의 교실이 완성돼 공개되자 학생들이 한 두명 모여들었다. 칠판에 큼직한 글씨로 "세월호 참사를 잊지 않았다", "단원고 학생들을 기억하겠다"고 적는 학생들, 빈 책상과 의자를 보면서 한숨만 짓고 돌

아간 학생들, 추모하는 방식은 달랐지만 잊지 않고 기억하겠다는 마음만은 같았다. 김정빈 부회장은 "처음에는 뭐하나, 그냥 간단히 하면 안 되냐는 말을 했던 친구들도 어제 오늘 추모공간을 둘러보고 그 의미를 들은 후에는 '마음이 절로 숙연해진다'고 했다"며 "중학교 때부터 세월호 행사에 참여하면서 인연을 맺어온 유가족들께 조금이나마 위로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광주·전남 학생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세월호 참사 5주기를 맞이하고 있다. 광주 수피아여고 학생들은 지난 15일 7분 짜리 세월호 추모영상을 공개했다. 학생들이 신문과 TV뉴스 등 자료를 모아 직접 제작한 영상에는 참사 당일인 2014년 4월16일, 그 날의 슬픈 기록이 담겼다. 사교 소식을 전한 뉴스 속보 장면과 최종 사망자수, 실종자수와 함께 침몰 직전, 차디찬 바다속에 갇히기 직전 '7만여 명이'라는 어른들의 말만 믿고 희망의 끈을 부여잡고 있던 아이들의 마지막 모습까지, 믿기 힘든 실제 상황들이 이어졌다. 학생들은 '아직도 그 바다 속에는 우리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 한 사람까지 가족 품으로 돌아오는 그날까지 세월호를 잊지 말아주세요'라고



세월호 참사 5주기를 하루 앞둔 지난 15일 전남공고 학생들이 직접 만든 추모공간 '기억의 교실'에서 희생 학생들을 추모하고 있다. 학생들은 "당시 단원고 2학년 7반에선 단 한명만 돌아왔다. 유독 아팠던 그 교실을 재현해 잊지 않고 기억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당부하는 글로 영상을 마무리했다. 이 영상은 15일 광주시교육청 페이스북과 유튜브에 공개했다. 진도 조도 초중고 학생, 교직원, 주민 등 100여명은 16일 참사 현장과 가까운 조도 해안에서 노란 유채꽃을 바다에 띄워보내며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했다. 자리에 함께 한 장석용 전남도교육감은 "세월호 이전과 이후의 교육은 같을 수 없다. 경쟁보

다는 협력을 중시하는, 사람이 가장 존중받는 세상을 열어가겠다"고 다짐했다. 장휘국 광주시교육감도 이날 문흥초에서 진행된 추모 행사에 참석해 "슬픔과 희망을 공유하는 아이들이 대견하면서 미안함과 고마움이 교차한다.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성찰과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김현호 기자 khh@kwangju.co.kr

## 의사도 속는 보이스피싱

광주서 8000만원 송금...60대 1800만원 피해 등 잇단 사기 '주의'

광주에서 보이스피싱 피해가 잇따라 발생해 주의가 요구된다. 16일 광주북부경찰에 따르면 50대 의사인 A씨는 지난 15일 오후 1시께 부장검사를 사칭하는 보이스피싱에 속아 8000만원을 송금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대구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단 부장검사인데,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됐으니 국가안전보장계좌로 통장 잔액을 입금하라"는 전화에 속아 돈을 송금했다. 같은 날 광주시 서구에서는 60대가 경찰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고 1810만원을 뜯겼다. 농성동에 사는 B(67)씨는 이날 자신의 휴대전화로 "광주지방경찰청 사이버특별 수사대 000형사입니다. 계좌가 해킹돼 돈이 빠져 나가고 있으니 남은 돈을 출금해 농성동 물품보관함 9번에 넣어두고 식사를 한 뒤 2시간 후에 오라"는 전화를 받았다. 이를 믿었던 B씨는 전화를 건 사람의 지

시에 따랐고 물품보관함의 비밀번호도 알려졌다. 이후 물품보관함을 찾은 B씨는 돈이 없자 뒤늦게 사기를 당한 사실을 알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CC-TV와 현장에서 채취한 지문을 토대로 농성역에서 광주종합버스터미널로 도주한 중국 국적의 20대를 추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직업·학력·연령에 상관없이 누구나 보이스피싱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며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의심스러운 전화는 일단 끊고 반드시 해당기관에 사실여부를 확인한 뒤 112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최근 3년간 광주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피해는 2016년 193건, 2017년 210건, 2018년 205건, 2019년(3월 말까지) 58건 등 총 666건에 이른다. 피해 금액은 14억4000여만원이다. /김현영 기자 young@kwangju.co.kr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상무지구 일대 성매매 알선 유흥업소 업주 등 7명 검거

광주경찰이 대표적 유흥업소 밀집지역인 상무지구 일대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 등 7명을 검거했다. 16일 경찰청에 따르면 광주지방경찰청은 지난달 말 풍속수사팀·강력·마약수사대 등으로 합동단속팀(17명)을 구성해 광주시 서구 치평동(상무지구)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같은 건물에 있는 모텔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와 모텔 운영자 등 7명을 입건했다. 경찰청은 지난 2월25일부터 지난 14일

까지 전국적으로 '클럽 등 대형 유흥업소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여 267명을 검거하고 이중 8명을 구속했다. 검거자 현황을 살펴보면 업주 103명, 성매매 여성 92명, 종업원 48명, 성매수 남성 23명, 건물주 1명순이었다. 경찰청은 유흥업소 불법영업행위 집중 단속기간인 다음달 24일까지 유흥업소의 성매매 등 위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이어가기로 했다. /김현영 기자 young@kwangju.co.kr

## 목포해경, 중국 밀항 시도 400억대 사기범 검거

목포해경은 16일 "선박에 몰래 탄 뒤 중국으로 밀항을 시도한 한모(49)씨와 이를 도운 박모(55)씨 등 3명을 밀항 단속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한씨는 지난 12일 오후 3시께 경남 거제시 고현항에서 중국 산둥성 영성시로 출항한 예인선 A호(3221)와 연결된 부산에 몰래 타 중국으로 밀항하려던 혐의다. 부산의 갑판원인 박씨와 기관사인 임모(66)씨는 배관과 파이프 등이 실린 부산

기관실에 한씨를 숨겨 밀항을 도운 혐의다. 첩보를 입수한 해경은 지난 14일 오전 9시40분께 신안군 하태도 동서쪽 1.5km 해상에서 A호를 검문검색하고, 한씨를 검거했다. 해경조사결과, 자본시장법위반 혐의(피해액 414억3000만원)로 서울남부지검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한씨는 구속을 피하기 위해 브로커에서 5000만원을 주고 중국 밀항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목포·김병만 기자 dss6116@

## 마약 투약 정황 포착 박유천 자택 압수수색

경찰, 오늘 소환 조사키로

경찰이 가수 겸 배우 박유천(33)씨의 신체와 자택 등을 압수수색 했다. 경찰은 박씨가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된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31)씨와 함께 마약을 투약한 정황을 포착하고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16일 "이날 오전 9시쯤부터 오전 11시 45분까지 3시간 가량 박씨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수사관 11명을 투입해 박씨의 경기도 하남 자택과 차량, 휴대전화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으며, 마약반응 검사에 필요한 모발 채취 등을 위해 박씨의 신체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했다. 경찰은 박씨의 휴대전화 1대, 신용카드 등 박스 한 개 분량의 물품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경찰은 또 이날 한때 박씨와 연인관계였던 황씨가 최근 3개월가량 거주하던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오피스텔에서도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박씨는 마약투약 혐의로 체포돼 경찰 수사를 받고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된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31)씨와 올해 초 밀로폰을 구매해 황씨의 서울 자택 등에서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황씨가 진술한 박씨와 마약투약을 한 날짜와 경찰의 통신수사 등을 통해 드러난 박씨의 동선이 대부분 일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와 황씨는 과거 연인 사이로 박씨는 지난 2017년 4월 황씨와 같은 해 9월 결혼을 약속했다고 밝혔지만, 이듬해 결별했다. 한편 경찰은 17일 오전 10시께 경기남부지방경찰청으로 박씨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 찜질방 화장실서 여대생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주먹 휘둘러



○...찜질방 여자화장실에서 10대 여대생을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주먹까지 휘둘러 20대가 감옥행. ○...16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A(28)씨는 지난 14일 새벽 2시20분께 광주시 서구 한 찜질방 여자 화장실에서 여대생 B(19)씨를 성폭행하려다 B씨가 반항하자 목을 조르고 수차례 주먹으로

때렸다는 것. ○...A씨는 여자 화장실을 훑쳐보기 위해 화장실 문 앞쪽에 자리를 잡고 있었다. B씨가 화장실에 들어가자 따라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관계자는 "A씨는 B씨가 반항하며 비명을 지르자 남자 탈의실 복도 구석으로 도망가 숨어 있다가 붙잡혔다"고 설명했다. /김현영 기자 young@kwangju.co.kr

### 슬라브 옥상스틸 방수 및 지붕공사

#### 단열재가 부착된 스틸(강판) 패널

옥상 스틸방수	지붕공사
아파트, 주택, 원룸, 학교, 상가건물 공공건물, 대형빌딩 등 (슬라브, 옥상)시공	슬라브 옥상, 주택, 상가 원룸, 데스리, 한옥 등 시공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여름의 뜨거운 열기!	옥탑이 없는 평 슬라브 주택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방수와 단열 이중효과! ▶옥상 사용 및 태양광 설치 전과 후 시공 가능! ▶시공후 관리 보수 용이!  
▶옥상 한번 시공으로 고민 끝! ▶최신공법의 특수 방수! ▶냉난방비 절감 효과!

디자인 등록 제 30-0934833호, 제 30-0949873호

**모던건설** (트윈스틸) 시공문의 **062)531-3530 H.010-9229-3530**

## 노안수술 받으면

### 돋보기 없이 J1, J2 글자를 읽을 수 있습니다

노안수술 후 읽을 수 있는 글자 크기

- J1 4point
- J2 5point
- J3 6point
- J5 8point
- J6 10point
- 7 12point

노안수술 후 읽을 수 있는 글자 크기

1652  
68247581  
251649783  
130758492  
246371280  
462610973  
576214302  
691749802  
874814002

광주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눈모양빌딩

신세계안과 문의 1566-9988